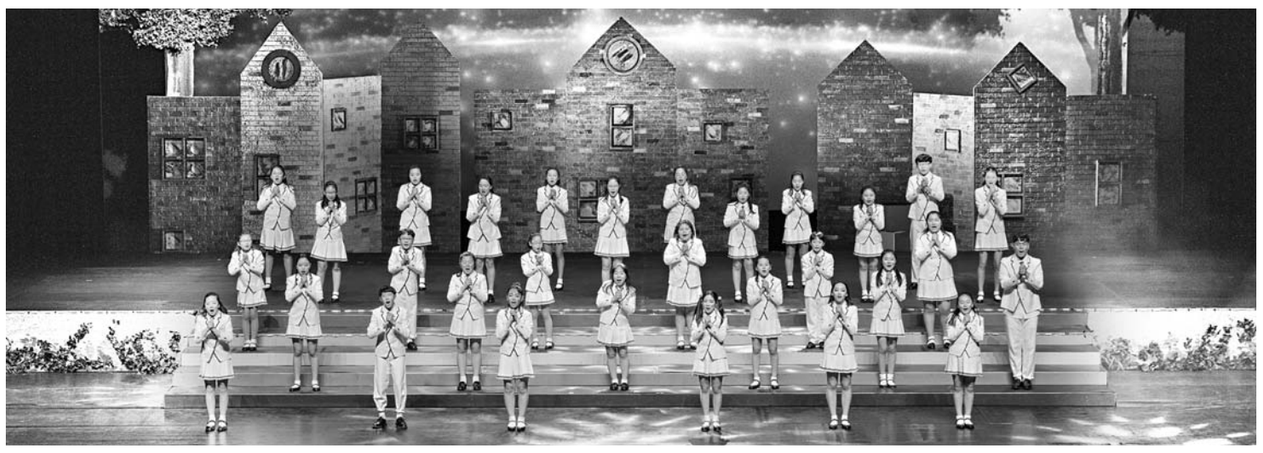

희망찬 봄의 노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SONG OF HOPE'
24일 7시 정기연주회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윤영문)이 오는 24일 오후 7시 제125회 정기연주회 'Song of Hope'를 공연한다. 싱그러운 봄, 희망찬 기운을 전하는 노래들을 풍성하게 선보인다.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40여명의 단원들이 맑고 순수한 하모니로 봄의 정취를 전한다.

여는 무대는 노래로 봄을 반갑게 맞이하는 '동요의 세상'이다. '어느 봄날', '엄마야 누나야+섬집 아기', '푸른 꿈을 키워가요' 등 봄의 기운을 가득 담은 동요들을 들려준다.

두 번째 무대는 무반주 합창음악으로 오직 목소리만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전한다. 요한 파헬벨의 '캐논', 폴란드 현대 합창 음악을 선도하고 있는 얀크잭의 성가곡 '자비송(Kyrie)'을 비롯해 린드마크의 '희망의 노래(Song of hope)'를 타악기 카혼 연주로 들려준다.

세 번째 무대는 인기 뮤지컬 음악 모음곡으로 채워진다. 뮤지컬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 시스터 액트, 그리스 등 유명 뮤지컬 속 음악과 춤, 뮤지컬 하이라이트 영상이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진다. 박영렬 재즈밴드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생동감 넘치는 음악을 선사한다.

특별 출연진도 화려하다. 광주 출신 8명의 중견 플루티스트로 구성된 그레이스 플루트 앙상블이 4 Ragtimes(4개의 레그타임) 연주를 들려주며, 창단 20년 전통의 광주아버지합창단이 '소나무', '동백섬', '마징가 z' 등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만 3세 이상 관람가능하며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613-8246.

/이연수 기자

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교류작가 선정

이세현·김자이·문유미·김민지 등 참여

2018 국제레지던시 교류 선정작가. 왼쪽부터 이세현, 김민지, 김자이, 문유미.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 청년작가의 창작활동과 세계 미술무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도 국제교류 참가자를 최종 선정했다.

2018년도 시립미술관 국제교류기관은 대만 타이난 샤울룽 아티스트 빌리지, 독일 뮌헨시 문화부 국제레지던시, 대만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대만 타이페이 국립대학 관두미술관이다.

타이난 샤울룽 아티스트빌리지에는 이세현(사진), 왕이팅(설치)이, 독일 뮌헨에는 김자이(영상, 설치), 올가 골로스(입체, 설치)가,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에는 문유미(퍼포먼스), 엔유팅(회화)이 3개월씩 작가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기획자 교류 프로그램(2개월)이 진행되는 타이페이 국립대학 관두미술관에는 김민지와 황치엔훙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중국 북경창작센터와 인연으로, 북경의 영향력 있는 갤러리에서 추천한 중국작가 펑루(3월입주)와 팡씬선(6월 입주)이 입주해 광주 작가들과의 교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20대의 첼로가 연주하는 클래식·재즈

내일 광주문예회관 아름다운 작은음악회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의 첫 공연 '보첼로 앙상블과 함께하는 20cellos'가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20대의 첼로가 클래식, 재즈, 영화음악을 연주하는 색다른 음악회다.

먼저 6대의 첼로가 오펜바흐의 '볼레로',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 피아졸라의 '사계' 등을 연주한다. 이어 20대의 첼로가 함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피치카토 폴카', 바흐 '첼로 모음곡 1번', 영화 미션 OST ,가브리엘 오보에,, 빌헬름카이저-린데만의 ,6대의 첼로를 위한 맘보,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곡을 연주한다. 현의 황홀함과 첼리스트들의 완벽한 호흡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첼로 송지현, 신원아, 조명환, 원지희, 진민수, 유승범을 비롯해 20명의 첼리스트가 함께 한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

한편, 아름다운 작은음악회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오는 4월에는 국내 최고의 카운트 테너 루이스 초이의 'The Story'가 예정돼 있다.

공연 40일전 40%, 공연 30일전 사전예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알뜰한 가격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7. /이연수 기자

4차 혁명시대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광주비엔날레, GB토크 22일 강우성 교수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주비엔날레 월례회 GB토크가 3월부터 시작된다.

광주비엔날레는 올 광주비엔날레 월례회 첫 번째 GB토크로 강우성 서울대 교수 공개 강연을 오는 22일 오후 7시 광주비엔날레 제문헌 3층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서 강 교수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된 오늘날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의 의미를 탐색할 예정이다.

'엑스 마키나'(Ex Machina, 2015)와 '언더 더 스킨'(Under the Skin, 2013) 등 인공지능과 외계인을 다룬 영화를 사례로 인공지능에 정서적 특성을 부여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감상화' 경향 및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음미해본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서 탄생한 21세기 인공지능 로봇들이 어떻게 20세기적 이분법의 경계를 허물고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는지 모색한다.

강우성 교수

서울대 영문과 교수이자 대학원 비교문학과 학과장인 강 교수는 학술지 '안과밖' 편집주간으로 활동했고, 미국소설학회 회장, 한국비교문학회 부회장, 영어영문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강연 참석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062-608-4233.

/이연수 기자

식당, 커피숍, 편의점, 노래방 – 점포임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 **최고위치** (지리산 온천 정문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 (55평), 편의점 (55평)
  지하 – 노래방 (85평)
- 호텔건물, 비/건 없슴, 커피숍/편의점 분할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시설 가능**
- 문의 –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즉시 입주 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매매 – 82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